



## 말과 글은 언어대중의 정신적 표상 대중매체에서 골라잡은 틀린 말 집대성

—「바른 말 바른 글」 펴낸 하희주씨

이 책 그 사람

당연히 주어저서 늘상 함께 있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그 존재에 대해 무심하거나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것들. 누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숨쉬듯 익혀버린 모국어 역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외국어는 문법의 뼈대를 몇번이고 외고, 또 외면서 조사 하나 시제 하나 틀릴세라 사전을 뒤적이고 또 뒤적이면서, 우리말을 것처럼 제련해가며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문법책 한번, 사전 한번 뒤적이지 않고 술술 사용해온 우리의 말발을 시간 내어 꼼꼼히 살펴보면, 무관심하게 방치한 텃밭처럼 웃자란 잡초들로 심란하기만 하다.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지적한 「바른 말 바른 글」(울지출판공사)을 들여다보는 심정이 그렇다.

“올바른 말은 올바른 정신을 낳고 병든 정신은 병든 말을 낳지. 말은 그 말을 쓰는 대중의 정신적 표상인데, 한 나라 한 사회의 말이 거칠고 무질서해진다는 것은 그 사회의 정신문화가 황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리고 엉터리 말을 쓰는 사람은 바른 생각 훌륭한 정신을 가질 수 없어.”

60평생을 국어연구에 신앙하듯 몸바쳐온 재야국어학자 하희주(64) 씨의 ‘말’에 대한 무서운 정의는 위와 같다.

56년 「현대문학」에 시로 등단한 시인이며, 오랜 국어교사생활을 해온 그는 이 한편을 펴내는 데에 20여년의 세월을 꼼꼼히 자료를 모았고, 교단을 떠난 이후 5년 시간을 바쳐 최근 이 책을 마무리했다. 이 책에는 천수백여개의 잘못된 문장과 잘못 쓰인 말이

옳은 문장, 옳은 말과 대비되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까닭을 평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여기서 뽑은 말과 글은 거의가 신문 잡지 방송 및 기타 서적들에서 인용된 것이어서 우리네 언어생활의 오염정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것들이다.

“선생이 학생을 교육시킨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사용하거나. ○○한다는 주어가 몫소 행하는 것을 이름이요, ○○시킨다는 제삼자를 불러들여 그를 부린다는 말인데, 여기서 교육을 하는 주체가 선생이니깐 ‘시킨다’가 아니고 ‘하다’ 지.”

이 예는 아주 비근한 것으로 이같이 ‘하다’를 ‘시키다’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90%에 이른다 한다. 주어가 없는 문장, 서술어가 없는 문장, 관형어·부사 등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가 대표적으로 꼽는 병폐.

“또, TV나 라디오를 듣다보면 ‘떠어 읽기’가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아. ‘형설 지공’ ‘아버지 전상서’라 하는데 ‘형설지공’ ‘아버지전 상서’가 맞지.”

기왕의 국어오용을 다룬 서적들이 대체로 ‘바로쓰기’에 관한 지적들이었다면 이 책은 ‘바른소리’ 부문에도 지면을 할애한 점이 큰 특징.

취재중 하씨는 우리가 잘 못하는, 예를들어 ‘의’라든가 ‘외’와 같은 어려운 발음을 신기할 정도로 정확히 소리냈는데, 취재 동안 틀린 발음을 일일이 지적, 이야기는 하다 끊어지고 또다시 이어지기를 몇번에 걸쳐 반복했음은, ‘물론’이다.

— 정혜옥 기자



## 번역작업 통한 젊은 시인의 재창작 산문시에 담긴 생명사상과 문명비판

—영시집 「Water, Fire & …」낸 원희석씨

이 책 그 사람

시인의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가, 라는 물음은 이제 ‘번역’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느낌이다. 최근 영역시집 「Water, Fire & Earth」(Green Publishers)를 선보인 원희석씨(34)에게 이번 시집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시를 평가받고자 하는 또하나의 ‘창작’이자, 그간 편협된 통로를 거쳐 원로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영역작업의 ‘관례’에 대한 나름의 의사표시이기도 하다.

“원로는 물론 현재 활발히 활동중인 젊은 시인들의 작품들도 과감히 번역, 앤솔로지 형태로라도 해외에 소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작품세계까지 포함해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도 그가 강조하고 있는 점.

“아무리 기다려도 내 차례는 올 것 같지 않았다”는 그의 말은 한 젊은 시인의 ‘당돌함’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거운 여운이 남는다. 한마디로 문화적 역량의 뒷받침이 있어야 양적 국력신장이 ‘표면적’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시집은 2년여에 걸친 꼼꼼한 준비를 거쳐 완성되었다. 첫시집 「물이 옷벗는 소리」, 두번째 시집 「바늘구멍 앞의 낙타」, 그리고 그 이후 발표했던 신작에서 각각 11편씩을 선정했는데, 데뷔 초기부터 틈나는데로 자신의 시를 번역해놓곤 했다고 한다.

막연히 “내가 쓴 책을 갖고 싶은 욕망”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문학이 이젠

평생의 업이 된 그의 시편들에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산문시에의 ‘고집’이다.

첫시집의 自序 ‘개구리와 두꺼비’에서 밝혔듯이 “입 큰 개구리 우는 것만 詩가 될까, 산문시는 두꺼비 울음쯤 될까. 냉혈동물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은 게 또 비가 올 것 같다”는 그의 선언은 시와 소설의 중간장르로서의 산문시를 개척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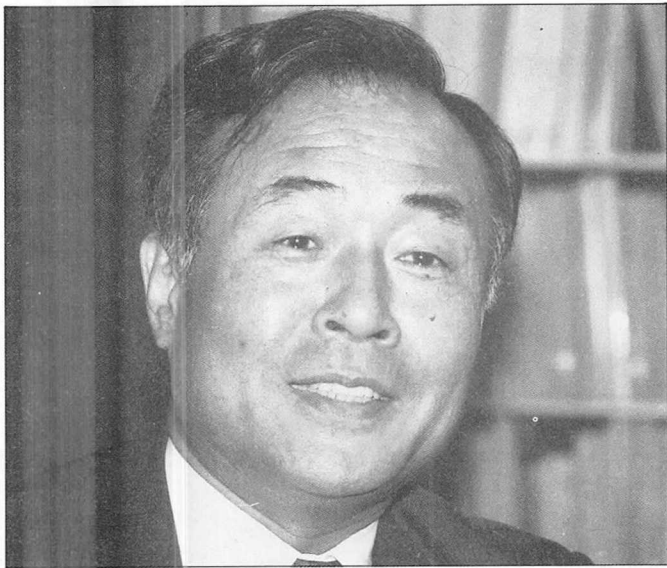
“제 시의 주제는 생명사상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초월의지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립되는 문명에 저항하는 거지요.”

그가 주장하는 것은 문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아니라 문명을 끌어안으면서 최대한 자연과 함께 하는 ‘점진적 발전’ 혹은 ‘개량적 발전’이다. 요즘 그의 시들에서 보이는 ‘진흙’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그의 관심을 반영한 것. 초기시의 물과 불, 그리고 이즈음의 흙이 합쳐져야 하나의 온전한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번역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문제로 지적되곤 하는 운율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도 산문시인 그의 시들이 갖는 ‘잇점’ 때문이다. 또한 그속에 빚어진 ‘이야기’들이 그 긴 산문시 — 특히 그의 요즘 산문시들은 그야말로 ‘장시’다 — 를 통해 일종의 읽는 재미까지 주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시집을 읽은 사람들의 평.

그러나 아직도 그 장시의 호흡을 유지시켜줄 구성력에 있어 많은 보충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궁극적으로 단 한사람의 독자, 즉 자기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계속 새로운 세계를 기웃거릴 것이라 한다.

— 정소연 기자



## 정보혁명 시대의 달라지는 미래상 과학발전의 양면 공정하게 살펴

—「텔레마띠끄」펴낸 서정욱씨



위성중계를 통해서 북경아시안게임을 시청하고 국제전화로 해외의 친지와 인사를 나누며 워드프로세서로

원고를 써서 팩시밀리로 송고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대체로 無定見하다. 변화를 채 감지하기도 전에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되는 탓도 있겠지만 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과학기술발전의 결과물들을 수용하기에만 급급하여 그 거대한 변화의 급류에 휘말린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실사 일정한 견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견해는 과학에 대한 무지를 등에 업고 원시적의 향수를 부르짖거나, 인간상실의 기술주의에 찬착하는 등 일면적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텔레마띠끄(telematique)는 원격통신(telecommunication) 과 정보처리(informatique)의 융합에 의한 기술적 사회변화를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말.

다가올 21세기를 '정보혁명'의 시대로 내다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과학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책

「텔레마띠끄」(정보시대사)는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를 깨뜨려주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문의 첨병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 서정욱씨(57세)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글을 쓰는 행위는 문필가의 것이고 과학기술발전의 문제는 과학자의 것이라는 분리된 시각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과학과 사회·문화·정치 등을 연관시켜 볼 줄 아는 안목이야말로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 사항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 그가 국내 각계의 '리더'들의 모임인 미래학회에 나가 다양한 방면의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열심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관사과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올바르게 다양한 정보의 입수에 있다. 한 사회가 수용하는 정보의 양과 질, 정보의 개방화 정도는 곧 그 사회 민주화의 척도가 된다. 그가 밝히는 우리나라 정보화 지수는 30. 인구 100인당 전화 회선으로 가능해보는 이 척도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의 정보화 수치는 각각 70과 60 정도. 우리나라는 정보화가 정착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보화가 정착된다는 것은 그 정보를 다루는 기술의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고 설명하는 그가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이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교육의 환경과 방법, 이념자체를 변화시켜 정보화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두뇌를 개발하지 않고는 기술의 자립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틈틈이 워드프로세서에 넣어 두었던 글들을 모아 이번 책을 펴냈다는 서정욱씨는 “전문용어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수필을 읽듯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들을 읽어 정보화 시대를 함께 준비해갈 것”을 독자들에게 기대한다. — 박남정 기자



## 윤동주 死因 의혹을 추리소설화 풍부한 자료에 다큐멘터리 수법 가미

—「윤동주 그 죽음에 관한…」펴낸 조한주씨



“현대문학지에 발표된 일본인 고노에 에이찌씨의「윤동주, 그 죽음의 수수께끼」란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눈앞에 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저항시인 윤동주의 사인이 '뇌일혈'이 아닌 '생체실험'의 부작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요지의 글이었어요. 물론 추정일 뿐, 뒷받침할 만한 물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구주의대 생체해부사건과 연관시킨 그의 논리에 상당 부분 공감감이 가더군요.”

윤동주시인의 사인에 대한 작가 조한주씨(44)의 궁극적은 단순한 호기심에 머무르지 않고 「윤동주 그 죽음에 관한 보고서」(남도)라는 장편소설을 내놓는 일로 이어졌다.

개인적인 애절한 심정과 출판사의 권유가 맞아떨어져 출판하게 된 이 소설은, 지금까지의 문예지 등을 통해 발표된 윤동주시인에 관한 많은 논문이나 자료와는 달리 소설이라는 양식을 빌고 있어 이채로운데, 더욱이 주일 특파원인 신문기자가 의혹의 죽음을 당한 저항시인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추적하는 과정에 추리소설기법과 다큐멘터리적 요소를 가미한 점이 독특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편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적 근거 확보를 위해 일본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원래는 단순한 사인규명보다는 일본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와 일제하에서의

지식인들의 고뇌를 폭넓게 그려보고자 했는데, 추리적인 요소가 사인규명과 맞물려 그런 부분의 충분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백지'와도 같은 영혼의 소유자라고 윤동주시인을 평하는 그는 작품을 써가면서 사인규명과는 또다른 재미에 빠졌다. 윤동주시인의 고종사촌형인 송몽규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것. “그러나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녀 18세에 남경에 있던 김구를 만나 독립운동에 가담하려다 실패하기도 한 그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시피 해서 무척 아쉬워 했다”는 조한주씨는 그나마 송몽규의 9촌조카인 소설가 송우혜씨의 도움이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한다.

지난 여름, 별난 무더위 속에서 윤동주시인과 함께 힘겨운 '여름나기'를 한 조한주씨는 72년 도의문화저작상 소설 부문에 월남전을 다룬 장편소설을 응모해서 등단했다.

84년에는 10년간의 직장생활에서 '손을 씻고' (?) 전업작가로 나서서 「잃어버린 神話」 등 줄곧 장편만을 발표해 온 그는 호홉이 길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며, 역사속에 묻힌 왜곡된 진실을 작품화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한다. 월남참전의 경험을 살려 3만명에 가까운 한인훈혈아들의 비참한 실상을 추리소설화 하고 싶어하는 그는 무엇보다도 여순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대하소설을 완성하는게 꿈이라며, 이번에 처음 시도한 추리소설의 매력을 “독자와 작가의 머리싸움이 작가에게도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시킨다”고 풀이한다. — 최태원 기자